

# 파견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파견국가	영국
파견대학	런던 리젠츠대학교
파견기간	23.03.06~23.06.16
프로그램	학기제

## 1. 출국 전 준비사항

###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영국은 6개월 이내의 체류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에 전 따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했습니다. 전 유학생 보험으로 삼성화재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의 경우는 본인의 상황에 잘 부합하는 상품을 고르시는게 최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국제학생증 등록을 하시면 해당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항의 비행은 제가 출국할 당시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유일했습니다.

###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상비약, 어댑터, 평소 쓰시는 화장품, 석회수 필터는 한국에서 챙겨가시는걸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은 모두 런던에서 구매하실 수 있지만 약은 한국에서 꼭 많이 챙겨가시는게 좋습니다. 런던 외의 다른 유럽 국가들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해당 국가에 맞는 어댑터도 미리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가서 구매할 경우, 더 비싼 값에 품질이 낮은 어댑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영국은 석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는 한국인들이 대표적으로 꺼려하는 점이기에 석회수 필터만큼은 한국에서 꼭 구매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현금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런던에서 현금결제를 할 경우 동전으로 거스름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점에서 비교적 카드사용이 훨씬 유용했습니다.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영국이 영어의 본고장인 만큼 저에겐 영국식 영어의 억양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처음 런던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국식 영어로 오랜기간 교육을 받았기에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1주일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런던은 모두가 잘 아는 이상적인 대도시임에 틀림없었고, 4달반이라는 기간동안 런던에서 생활해보니 제가 느낀 주요 특이점은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얹혀 살아가는 다인종 도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와 학교 밖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의 국적은 영국 뿐만이 아닌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아프리카, 이스라엘, 아일랜드, 중국, 인도, 일본까지 정말 다양했고 덕분에 여러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어 더욱 특별했습니다.

런던의 물가는 예상대로 높았습니다. 외식물가가 비쌌던 반면, 마트의 식재료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요리를 잘 하신다면 외식비를 크게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물가는 한국에 비해 비쌌지만 런던에서 학생으로 생활하는 몇달의 짧고 소중한 기간 동안 최대한 알차게 모든걸 즐겨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있는 소비가 되실것 같습니다.

## 나. 파견 대학

### 나-1. 대학 선택 이유

교환학생은 학교생활도 중요하지만 경험적으로는 학교 외의 생활에서 배우는 점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 학교를 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제게 큰 배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리젠츠대학교에서의 수학을 결정했습니다.

### 나-2. 공항 - 학교

히드로공항에서 지하철 엘리자베스 라인을 타면 리젠츠대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역인 Baker Street까지 40분 이내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비용적 측면으로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우버와 볼트가 있습니다. 우버와 볼트 모두 택시이지만 볼트가 더 저렴합니다. 튜브를 타시면 15파운드, 택시를 타시면 보통 60파운드 내외입니다.

###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리젠츠대학교에서 학기제 수학기, 출국 전 학기말에 리젠츠대학교 어학본부 외국인 선생님께서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간단히 15분 내의 인터뷰를 진행하십니다. 이를 토대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며 학기제는 어학수업이기에 본인이 속해질 영어 수업반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별개의 수강신청은 없고 리젠츠대학교에서 학기 시작 첫날 오리엔테이션때 본인의 반을 알려주십니다. B1, B2, C1, C2 이렇게 4개 레벨의 반 등급이 있었습니다.

저는 C2반에서 Joesph선생님과 매일 오전에 3시간씩 수업을 들었고 학생은 3~7명이었습니다. 교재 뿐만 아니라 BBC뉴스도 다루고, 정치 이슈, 역사 등의 매일 다른 주제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고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전 학교 기숙사 대신 자취를 선택했습니다. Spareroom과 영국사랑 이 두가지 사이트가 런던에서 자취집을 구할 수 있는 메인 사이트입니다. Spareroom은 외국인들도 런던에서 많이 이용하는 집 렌트 사이트이고, 영국사랑은 런던에 거주하는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로 한국인들이 집 렌트를 주고받는 사이트입니다. 두 사이트 모두 사기계약이 종종 있다고하니, 뷰잉을 꼭 거친 후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 나-5. 교내·외 활동

매주 목요일 오후엔 Conversation Club이라는 다른 반의 친구들과 섞여 자유롭게 토론하며 친목을 다지게 도와주는 교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반의 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인맥을 키워나가고 여기서 만든 인맥으로 교외에서도 함께 놀며 친해질 수 있습니다.

####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교통은 오이스터 카드(런던 교통카드)와 구글맵만 있다면 정말 편리하게 어디든 다니실 수 있습니다. 1학기 파견학생이시라면 5~8월은 정말 해가 늦게 지고 빨리 뜨기 때문에 비교적 더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런던을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4월 초까지는 비도 정말 자주오고 날씨도 영국답게 흐리지만 4월 말부터는 날씨도 정말 좋고 점점 일몰도 늦어져 교환학생 분들이 단기간에 런던을 최대한으로 즐기시기에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배달의 민족 어플이 있듯이, 런던에는 딜리버루라는 배달어플이 있습니다. 요리에 서툰 학생분들이시라면 딜리버루 어플이 정말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한식당 배달도 정말 잘 됩니다. 또한 오세요와 서울플라자라는 한인마트도 체인점으로 여러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영국이 음식이 맛 없기로 악명높은 나라이지만 런던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어 양식이 질리실 때 종종 들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꽤 떨어진 뉴몰튼이라는 곳은 런던의 한인타운으로 맛있고 유명한 한식당들이 많습니다.

####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전 학기 종료 후 부모님과 프랑스 파리를 여행했습니다. 유로스타를 타시면 런던에서 파리로 정말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파리 여행계획이 있으시다면 유로스타를 미리 예약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행기를 타는 방법도 있지만 유로스타가 훨씬 더 편리하고 시간적으로 절약됩니다. 학기 중 학교를 최대한 결석하지 않고 여행하시는 방법으로는 런던에는 Bank Holiday가 평일에 꽤 자주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학기 중 여행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영국 런던으로 떠난 4달 반의 교환학생 경험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행복했고 제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리젠츠대학교에서의 학교생활도 100% 너무 만족합니다. 누구나 기회가 되신다면 런던 리젠츠대학교로의 교환학생을 추천드립니다.

#### 5. 사진자료





